

원희룡 장관, 15일 부산에서 OSJD 장관회의 총회 주재

- 참가국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 결정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5일(목), 부산 벡스코(제2전시장)에서 개최된 「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장관회의」 총회를 주재하였다.

* 국제철도협력기구 :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를 이용한 여객·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하여 '56년에 창설한 국제기구(총 회원국 30개국)이며, 우리나라는 '18년에 회원국으로 가입 (OSJD : 공식명칭인 "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"의 영어 발음 약칭)

** 제50차 OSJD 장관회의 : 우리나라가 OSJD에 가입('18년)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장관회의로, '2030 부산 세계박람회'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에서 개최(6.13~16)

○ 원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2수도이자 세계 2위 규모의 환적항을 보유한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인 부산에서 '2030 세계박람회' 유치에 도전 중으로, 장관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에게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였다.

* OSJD 장관회의에 참석한 19개국 중 18개국이 세계박람회기구(BIE) 가입국

□ 이번 장관회의 총회에서는 OSJD의 주요 업무 실적과 향후 업무계획, OSJD 위원회의 직책 분배뿐만 아니라,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여객과 화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'국제철도운송협정' 가입이 결정되었다.

○ 특히, 화물운송협정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 화물 운송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제철도를 이용하는 수출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협정에 가입한 국가만 참여 가능한 "OSJD 물동량 회의"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철도 화물 운송량(Quota) 확보 → 최근 국제철도 운행 주요국가의 자국 물량 우선 운송에 따른 국내 수출물류의 적체피해(연 300억원) 해소

** 국제철도 이용 물류의 예측성과 정시성 확보로 중앙아시아, 동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철도를 이용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('22년 기준 국제철도 이용 수출물류는 10만 TEU 수준)

□ 원 장관은 "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국제철도 화물 운송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"라며,

- “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5대 수출 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라시아 국제철도 운행에 대해 OSJD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이후 원 장관은 OSJD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슈크라코브 바실리(Shkurakov Vasyl) 제1차관과 우크라이나 재건복구를 논의하는 면담자리를 가졌다.
- 원 장관은 “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좋은 파트너로서,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 지원하여 우크라이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”라며,
- “철도 분야 주요 사업*에 우리나라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, 올해 5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아자르키나 차관이 제안한 ‘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’에 대해서도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도시개발·철도·항공·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”라고 밝혔다.
- * 키이우~바르샤바 고속철도 사업 타당성조사, 오데사~이즈마일~레니 철도용량 증대 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공적개발원조(ODA,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 심의 예정
- 이에 대해, 슈크라코브 바실리 1차관은 “유럽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무척 중요하며,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”며 화답했다.

2023. 6. 15.
국토교통부 대변인